

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꼼짝마

진안군의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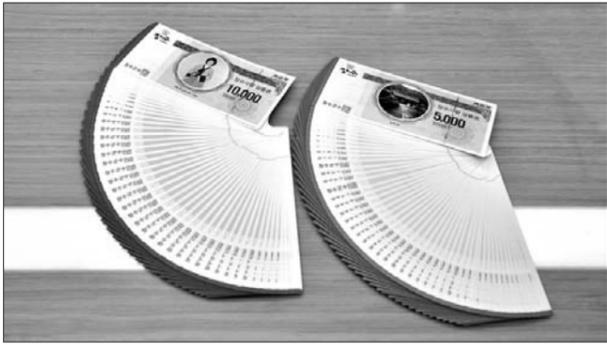
장수군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장수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9일 장수군에 따르면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유통 가맹점을 등록한 뒤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로 허위 결제해 지원금(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군·읍면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 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진행한 뒤 대상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 점검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



장수사랑상품권.

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장수사랑 상품권 제도의 운영취지가 극소수의 부정유통 사례로 훼손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군은 앞으로 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본격 추진

5억8000만원 투입 128가구 지원

진안군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2021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추진 사업은 ▲노후주택 수선유지급여 지원 ▲희망의 집 고쳐주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예산 5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128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선유지급여지원'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집을 소유한 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한다. 78가구가 대상이며 1가구당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및 이동이 편리하도록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전·월세 가구인 경우 임대인과 협의의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 47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진안을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고향마을)

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무주택 기초수급자 37가구에 대해 최대 6년간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진안군은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30가구를 연계·지원한 바 있다.

전춘성 군수는 "주거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소득층에 한해 선별적 지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향후, 진안군은 공공임대아파트 확대 등을 통해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농기센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안전교육

진안농업기술센터는 9일부터 7월 말까지 진안을 가리리 탄곡마을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대상 농기계는 이앙기, 관리기, 방제기 등으로 영농시기별 소형 농기

계 중심으로 한다.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에서 관내 80개 마을을 찾아가 실시하고 부품값을 제외한 수리비는 무상으로 시행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자가 수리능력

향상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 지도함으로써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더불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엔진오일 무상 교환까지 이뤄지고 있어 용담호 주변 및 상수원에 오염물질 유입을 근절하는 등 환경보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건축사업 효율적 운영방안·아동학대 예방 대책마련 촉구

진안군의의회(의장 김광수)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김민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건축공사 업무에 대비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매년 신규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21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건축물 신축공사가 8개 사업에 337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건축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인근 무주군의 경우 "공사계획과 예산편성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설계부터 준공은 시설지원팀에서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매년 인사 운영계획 수립 시 각부서의 전문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배치하거나 각 부서의 소관 국에서 국 소관 건축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공사감독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광수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24시간 노출되어있는 만큼 신속한 현장출동 및 조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공유를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학대아동의 보호조치가 가능한 관내 보호시설의 확충"을 제안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조준열)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관순)에서 '진안군의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종합대책과 방역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백신접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 교 육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부모와 자녀 간 친밀도 제고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지원, 양육스트레스 해소 및 자녀의 사회성 발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나 가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부모와 자녀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호기심과 학, 미술이 놀자, 쿠키클래스, 메이크업 등 연령에 맞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가족행사가 불발된 영아가가정(0세~1세) 대상으로 '영아기 100일 상', '영아기 첫돌 상' 대회를 실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영수 장수군수,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 동참

장영수 군수는 9일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챌린지'는 1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작한 운동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실천 17가지와 할 수 있는 실천 1가지를 약속한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장 군수는 '일회용품사용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하고!'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와 배달음식 증가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일수록 군민 모두가 올바른 분리배출에 힘써야 할 때"라며 "커피숍이나 마트 등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텀블러와 용기 등을 가지고 장보기하는 습관을 생활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이환주 남원시장과 권미자 장수경찰서장을 지목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의의회,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진안군의의회(의장 김광수)는 9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육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도시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육주 의원은 결의문 제안 이유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향에 대한 애郷심 고취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물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발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08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17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3조7,000억원으로 2008년 822억의 44배나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